

2019년 11월 4일, 서귀포시 예래동(상예1동) 강승화 씨 댁, 문순덕 · 김은정 조사.

강승화(남, 1938년생, 서귀포시 상예1동)

- 서귀포시 상예동 출생으로 20대에 5년 정도 타지 생활 이외에는 현재까지 상예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길을 가던 사람이 날이 저물자 무덤 옆에서 잠들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자신들의 제삿날 아들집에 갔는데 큰아들은 제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찬물을 올려놓고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큰아들이 괘씸하였던 할머니는 다시 가서 큰아들집에 불을 지르고 와 버렸다. 꿈에서 깬 사람은 마을로 내려가 자신이 꾸는 꿈을 말하니 사실이었다. 그 후 작은아들은 부자로 잘 살았다.

[제보자] 어떤 사람이 길 가당 날 저물앙 산담 어염에라도 좀 자주, 거기서 특하게 짐을 놓고 좀을 자는 디 할망이 꿈에

“하르방 읍서 아이들 식게 차려 낫이난 먹영 오게.”

“할망만 가. 나 손님 오라부나네 저사람이나 강 와.”

할망은 아들집에 식게 먹으레 왓주. 오랑 보난 좀만들 과릉과릉 잼어. 좀만 과릉과릉 잼이난 기가 맥형 나오라네 이젠 족은아들신디 가 보난 족은메누리가 지극 정성으로 아무것도 엇이난게. 찬물 떠놓고 막 빌었이난.

“아이고, 기게 요것이 내 자손이로구나 헨. 내 집안이 메누리로구나.”

게난 오나네 하르방신딘

“이만저만행 강 보나네 식게 출리는데 과릉과릉 잠만 잼입디다. 작은집이 강 보난 찬물 올려낭 빌었입디다.”

“게건 큰집이 가그네 괍살 하나 헤동 와.”

늑려오랑 큰아들 집에 불태워 불언.

할망은

“강 헤동 왓우다.”

아고 오꽃 꿈에서 깨 불언. 붉으난 그 사람은 므슬 좇아갔어.

“이 동네 큰 사고 나지 안헐우과?”

“어디서 왔소. 당신 누구요?”

나 이만저만 도베진인데. 어젯밤에 아무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할망, 하르방을 만났는디 제삿집에서 제사는 안 지내고 잠만 자고 있더라고 할망이 가서 불 붙여불고 죽은집이는 어쩔 안헐다고. 경헐다고 헐난. 나중에 죽은집이는 부자로 잘 살안.

[조사자] 어르신, 이런 말은 언제 들어납디가?

[제보자] 이거 나 들어나 건지가 훈 육십년. 모여 앉으면 동네 어른들한테 옛말 들었주.

- 핵심어: 식계(제사), 할망(할머니), 하르방(할아버지), 꿈, 죽은메누리(작은며느리), 막술(마을), 산담, 큰아들